

# 춘향제, 온라인 전환 결정

제전위, 코로나19로 연기된 축제 개최 방안 논의

춘향제향·춘향선발대회 등 무관객으로 진행

새 브랜드공연 '춘향은 살아있다' 추첨 통해 현장 관람

제90회 춘향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는 지난 14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제90회 춘향제 개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90회 춘향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반기 개최 예정이었으나, 하반기에도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최 방안을 변경하게 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춘향제를 온라인 축제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세부적 개최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따라 제90회 춘향제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청정남원 유지를 위해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쌍방소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90년의 역사를 간직한 춘향제향은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 춘향사당에서 무관객으로 진행하며, 전 과정을 춘향제 유튜브채널인 '남원과락'에서 언제 어디서든 시청이 가능하다.

춘향선발대회는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무관객으로 본선을 진행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선 및 본선

준비 중에도 엄격한 방역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며, 춘향선발대회 참가신청은 7월 30일까지 받는다.

올해 새롭게 준비한 대표브랜드공연 '춘향은 살아있다'는 광한투각을 배경으로 유명연예인이 주연으로 참여하는 수준 높은 뮤지컬공연으로, 추첨을 통해 일부 관객에 한해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올 춘향제에서는 공연에 대한 갈증해소와 남원관광 홍보를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문화예술공연 '춘향, 남원을 여행하다'를 남원의 아름다운 관광지 8개소인 남원예촌, 예무원, 김병종미술관, 혼불문화관, 서도역, 허브밸리, 동편제마을, 몽심재를 배경으로 실시간 공연을 진행하고, 실시간 댓글을 통해 온라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코로나시대 색다른 공연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재편집을 통해 유튜브채널 '남원과락'에서 축제 이후에도 언제나 고품질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도 시민 참여를 위한 이벤트로, 춘향제 추억공모전과 춘향제 로고송 이벤트를 추진해 춘향제에 얽힌 추억이 담긴 편지, 사진, 이야기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응모받으며, 로고송 이벤트는 로고송을 배경으로 춤, 노래, 악기연주 등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한편 운영부 제전위 부위원장은 "코로나시대를 맞아 축제의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다"며 "온라인 춘향제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 등을 세심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90회 춘향제가 온라인 축제로 치뤄진다. 사진은 춘향제향.

/남원=김기두 기자



## '우리동네 이야기꾼, 전기수'

완판분문화관,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어린이 등 대상 진행

완판분문화관(관장 안준영)에서는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이야기 문화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우리 동네 이야기꾼, 전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202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으로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협력으로 운영된다.

전기수는 조선 후기 소설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던 직업 이야기꾼이다.

'우리 동네 이야기꾼, 전기수'는 조선시대 고전 소설을 읽어주던 직업 이야기꾼 전기수의 구연방식에 주목한 기획 프로그램이다. 교육생들과 함께 놀이, 화법, 발성, 동작 등의 실습을 통해 이야기를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판소리, 연극 장르를 결합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진행된다.

1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전 10~12시, 2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후 14~16시로 매주 토요일 총 8회 차에 걸쳐 운영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조연수(소리꾼·전

북대 한국음악학과) 주강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연극인과 마주하다. 전기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전춘근 대표(극단 까치동)의 특강도 있을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야기 문화에 관심이 있는 성인,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전달하고 싶은 어린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프로그램 수료생들 중 '완판분 전기수'를 선발해 완판분문화관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고전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안준영 관장은 "지역의 어린이, 시민들이 완판분 이야기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했다"며 "우리 동네 전기수가 되어 보는 교육을 통해 지역의 이야기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참가비는 전액 무료며, 수강 인원은 기수별 10명 내외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강생 거리두기와 발열 체크 및 방역소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수강 신청은 오는 23일(화), 기타 자세한 문의는 완판분문화관(063-231-2212~3)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 '남경선인을 따라가는 심청 이야기'

국립민속국악원, 25일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담판' 서선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예월당에서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담판(이하 담판)'으로 심청가 중 '남경선인을 따라가는 심청'을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담판은 판소리의 인류무형유산으로 가치를 극대화하고 관객들에게 판소리의 인문학적 지식을 향상시켜주는 해설이 있는 판소리 공연이며, 이번 공연에서는 심청가를 중심으로 풀이꾼 원기중(국문학 박사)과 이야기꾼 왕기석(국립민속국악원장)의 진행으로 매달 명창들의 판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미 삼백석 축원을 시작으로 선인들을 따라가는 대목까지를 전복도립국악원 창극단 장문희 명창의 소리로 만나게 되며, 카카오톡 채널 및 네이버 포스트에서 공연의 내용을 미리 만날 수 있으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음원 감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민속국악원의 공연은 생활속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전 예약을 통해 선착순 100명만 관람할 수 있으며, 예약은 전화(063-620-2324~5) 혹은 카카오톡 채널(삼담직진과 대화)에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영화제작소, '후반'

제작시설 3분기 교육생' 모집

전주영화제작소는 매해 참여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후반 제작 시설 교육프로그램 3분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진행한 '지역 영화 후반 작업시설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반기별로 진행되던 기존 방식이 아닌 분기별로 교육을 확대,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영화 영상 전문인력양성 목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교육은 촬영, 편집, 영상효과, 색 보정 총 4개 분야로 나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촬영감독, 편집 기사, 색 보정 전문가 등을 초빙해 실제 제작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교육하게 되며 수강생들은 교육 기간 홍보영상 하나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생 모집은 20일부터다. /뉴시스

전주박물관 '온라인서 배우는'

마크라메' 체험 행사 29일 진행

국립전주박물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온라인서 배우는 마크라메'를 주제로 온라인 강좌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전주박물관 온라인(박물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영상으로 진행된다.

전주박물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된 문화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 문화 행사로 추진하기로 했다.

첫 번째 순서로 마크라메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마크라메는 13세기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서양식 매듭공예로 '매듭실 레이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다른 도구 없이 오로지 손을 이용해 끈으로 매듭을 엮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모집기간은 20일부터 24일까지다. /뉴시스